

# 조선시대 倭鏡의 유입과 배경

권주영\*

- I. 머리말
- II. 한국 소재 왜경의 현황
- III. 유입경로
- IV. 유통배경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거울의 자료는 약 400여점에 달하며 그 종류도 약 30여종 정도 된다.<sup>1</sup> 출토된 경들은 공반유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중 조선시대의 거울은 물론 22面の 倭鏡이 확인된다.<sup>2</sup> 이외에 사찰이나 박물관 등에 남아 있는 전세품을 합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왜경은 77점이다.

倭鏡이란 和樣으로 장식한 일본의 거울로서 일본에서는 和鏡이라 부른다. 和樣이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들꽃, 물가, 담장, 소나무 등 일본인 정서에 맞는 문양을 의

\* 경남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과장

<sup>1</sup> 출토된 거울로는 청동기시대 다뉴경과 한경의 방제경이 60여점에 달하고 고려~조선시대 거울은 340여점에 해당한다. 출토품 외에 국공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사찰 등에 소장품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sup>2</sup> 조선시대 거울에 대한 주요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李蘭暎, 『韓國의 銅鏡』(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李蘭暎, 『高麗鏡 研究』(도서출판 신유, 2003); 황정숙,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본 銅鏡 文樣의 象徴性 研究」(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고려동경-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2010); 權珠英, 「여말선초 梵字文柄鏡 연구」(『중현 심봉근박사 고희기념논선집』, 2012)

미한다.<sup>3</sup> 왜경의 성립은 헤이안시대에 唐代 瑞花雙鳥八稜形鏡을 반복적으로 재주·방제하면서 시작되는데 당시 유행한 야마토에(大和絵)의 小景畫를 경배 전체에 장식하는 경이 등장하고 일본의 재주·방제 기술과 결합하여 점차 독자적인 문양과 형태로 발전한다. 왜경은 가마쿠라시대에 정립되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와 밀도 높은 문양 배치가 이 시기의 특징이며, 이후 무로마치시대 擬漢式鏡과 에도시대 柄鏡 등 새로운 문양과 형태도 등장한다.<sup>4</sup> 이러한 왜경이 조선시대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점은 당시 거울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배경적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왜경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경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거울 또한 도록 및 개설서에 간혹 소개되는 수준으로 국화문경, 범자문병경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거울의 수량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울이라는 器物이 舶載·再鑄·倣製가 가능하고 제작된 이후에 교역의 대상이 되거나 傳世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왜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조선시대에 유입된 배경과 사용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왜경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었는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입 이후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였던 시대적 배경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한국 소재 왜경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왜경은 대체로 조선시대 분묘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분포범위는 서울 경지지역과 충청도 및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며 충청북도 27%, 서울경기 13~14%,

<sup>3</sup> 広瀬都巽은 일본의 거울에 대해 “平安時代 이후, 나름대로 중국의 굴레를 탈피하여 자연적으로 친근하게 된 국민성에 기초하여, 섬세한 수법으로 경쾌하고 수려한 문양을 시문한 것”이라 정의한다. 왜경에서의 문양 즉 和樣은 일본의 자연 풍물 가운데 초화와 수목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가 주 소재이다. 수목은 주로 “소나무(松)·황매화(山吹)·앵두나무(桜)·등나무(藤)·참역새(薄)·사철쭉(萩)·단풍(楓)·국화(菊)”등이며 새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꼬리 긴 새(尾長鳥)·학(鶴)·원앙(鴛鴦)·물새떼(千鳥)·참새(雀)” 등이 해당된다. (中野政樹, 『和鏡』, 日本美術 第42号(至文堂, 1969), p. 33; 広瀬都巽, 『和鏡の研究』(角川書店, 1974), p. 63)

<sup>4</sup> 일본에서 제작된 거울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1조의 계권과 직립하는 주연을 들 수 있다. 또한 무로마치시대 등장한 병경은 에도시대 중기부터 여성의 머리장식과 함께 급속도로 유행하게 된다. (久保智康, 『中世·近世の鏡』, 日本美術 第394号(至文堂, 1999), pp. 24-26; 中村潤子, 『鏡の力 鏡の想い』(大巧社, 1994), pp. 177-179; 内川隆志, 『柄鏡の變遷』, 『柄鏡大鑑』(ジャパン通信社, 1994), pp. 337-351).



도 1 한국 소재 왜경 분포도

그 외 충청남도과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확인된다.(도 1)

이에 왜경의 존재를 인지하고 전국 소장품을 조사한 결과 국립박물관 소장품 24점, 대학 및 사립박물관 소장품 12점, 전국 사찰 소장품 18점이 확인되며 종합하면 총 수량은 77점이다.(부록 1)

이들 거울은 제작법에 따라 原鏡, 再鑄鏡, 倣製鏡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찰 소장품으로 원경이 많고 발굴 출토품으로 재주경과 방제경이 많다. 시기구분이 가능한 속성으로는 문양과 평면형태, 그리고 명문이 있다. 문양으로는 蓬萊文, 菊花雙鳥文, 紋章·大文字文, 龜甲雙鳥文 등 아홉가지로

분류된다. 평면형태에 따라서는 원형경, 방형경, 병형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울의 명문으로는 天下一銘, 受領國名銘, 鏡師銘이 있다.<sup>5</sup>

한국 소재 왜경은 현재 일본에서 전해지는 기년명경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거울의 종류를 문양에 따라 분류하면 蓬萊文鏡 15점, 菊花雙鳥鏡 12점, 紋章·大文字文鏡 9점, 龜甲雙鳥文鏡 4점, 人物故事·動物文鏡 4점, 日月山水雙鳥文鏡 4점, 花鳥文鏡 4점, 菊花環圓蝶鳥文鏡 3점, 기타 鏡類이다.

蓬萊文鏡은 총 15점으로 발굴조사 출토품 3점, 국립 및 사립박물관 소장품 3점, 사찰 소장품 10점이 있다. 일본의 봉래문경은 가마쿠라시대 중기 이후 성립되는데 14세기의 기

<sup>5</sup> 일본 병경에 명문을 넣는 양식은 근세 일본의 桃山時代의 ‘天下一’ 명문경에서 시작한다. 이는 모모야마시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가 莊園制度에 매여 있던 工人집단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天下一’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제도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후 공허를 받지 않은 경사가 ‘天下一’銘경을 제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46~1709)는 天和2년(1682) ‘天下一’ 명문의 사용 금지령이 내린다. 이에 鏡師는 ‘天下一’의 명문을 변형하거나 당시 황족이나 귀족의 자제가 출가한 사찰에 금품을 내고 禁裡(일본의 궁중)의 칙허에 의한 국명을 받아 동경의 명문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受領國名이라 한다. 受領國名은 원래 수령자 1대 뿐이지만 鏡師의 자손에게 전해져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점차 이 또한 세습되기 때문에 安永元年(1772) 10월에는 受領國名과 官名의 세습을 정지하는 금령을 내린다. 1772년 이후 鏡師는 더 이상 受領國名과 官名에 집착하지 않고 본인의 姓名만을 새겨넣어 제작하게 된다. (中野政樹, 앞의 책, p. 65; 広瀬都巽, 앞의 책, p. 159; 内川隆志, 앞의 논문, pp. 343-350)



正中二年銘 蓬萊文鏡,  
1325년, 19.29cm, 일본  
오오토진자(大戸神社)소장

文安2年銘 蓬萊文鏡,  
1445년, 40.9cm, 일본  
아즈다진구(熟田神宮)소장

天正十七年銘 蓬萊文鏡,  
1589년, 11.4cm, 일본  
熟田神宮소장

蓬萊文柄鏡, 室町時代,  
14.9cm, 일본  
大阪市立博物館 소장

## 도 2 일본 紀年銘 蓬萊文鏡 시기별 변화양상

년명경인 正中二年銘 蓬萊文鏡이 대표적인 작품이다.<sup>6</sup> 봉래산이 변형되어 괴석과 소나무로 간략히 표현하고 하단에 물가 풍경이 펼쳐지고 좌측에 雙鶴, 桐竹으로 재구성한다. 문양의 세밀한 선 묘사가 돋보이며, 회화적인 자연스런 표현이 특징이다. 15세기의 文安二年銘 蓬萊文鏡에는 봉래산이 사라지고 화면 하단은 평지로 변화되며 마하파의 소나무를 연상시키듯 직각으로 꺾여 올라가는 樹枝法, 도상 사이에 빈 공간을 두어 느껴지는 여백과 깊이감 등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화면을 연출하고 있다. 16세기에는 획일적인 문양을 보이는데, 天正十八年銘 蓬萊文鏡의 예와 같이 소나무 가지와 잎은 짧은 선으로 표현되고 전체 화면은 평면화되는 변화를 보인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문양 중 쌍학이 차츰 뉴 위로 올라가 배치되는 소위 龜鈕雙鶴接嘴 양식이 등장한다. 17~18세기 이후로는 가운데 뉴가 점차 사라지고, 문양의 구도는 소나무, 학, 거북이 삼각 구도를 이루는 것이 정형화되어 19세기로 이어진다.(도 2)

일본 봉래문경의 양식 변화를 기준으로 일본에 조사된 기년명경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구분을 해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턱177)은 1362년의 기년명이 있는 康安二年銘 小村神社 소장품과 비교되고, 영동 법화리 유적 출토경은 1590년 기년명의 天正十八年銘 熟田神宮 소장품과, 순천 선암사 소장 天下一銘 蓬萊文鏡은 1605년 기년명의 慶長十五年銘 白山神社 소장 天下一銘 蓬萊文鏡과, 양산 통도사 소장 蓬萊文柄鏡은 일본 京都府立總合資









<sup>6</sup> 蓬萊文은 소나무·학·거북·암초가 조합된 모티브로 불로장생의 묘약이 있다는 중국 전설상의 산인 봉래산을 의미한다. 일본의 봉래문 거울은 가마쿠라시대 13세기 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사찰에 봉헌하였다.(中野政樹, 앞의 책, p. 15; 국립중앙박물관, 『일본미술명품』(솔출판사, 2002), p. 167)

料館 소장 蓬萊文柄鏡과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 소재 봉래문경은 14세기 후반 부터 19세기까지 편년된다.(도 3)

한국소재 蓬萊文鏡	일본 紀年銘 蓬萊文鏡
 <p data-bbox="533 595 771 658">蓬萊文方形鏡, 18,3×14,2cm, 출토지불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턱177)</p>	 <p data-bbox="1037 595 1247 658">康安二年銘 蓬萊文方形鏡, 1362년, 15,51×10,74cm, 일본 小村神社 소장</p>
 <p data-bbox="305 871 509 942">蓬萊文鏡, 7,9cm, 서울시 은평 진관동 분묘군 Ⅲ-2-124호 토광묘 출토</p> <p data-bbox="543 871 761 942">天下一銘 蓬萊文鏡, 8,0cm, 경남 양산 통도사 소장</p> <p data-bbox="789 871 1005 942">蓬萊文鏡, 10,0cm, 충북 영동 범화리유적 1호 토광묘관묘 출토</p>	 <p data-bbox="1047 871 1237 942">天正十八年銘 蓬萊文鏡, 1590년, 9,81cm, 일본 熟田神宮 소장</p>
 <p data-bbox="417 1161 641 1213">天下一銘 蓬萊文鏡, 10,5cm, 전남 순천 송광사 소장</p> <p data-bbox="669 1161 879 1213">蓬萊文鏡(倣製鏡), 8,8cm, 봉화 청량사 소장</p>	 <p data-bbox="1051 1161 1233 1232">天下一銘 蓬萊文鏡, 慶長十五年銘, 1605년, 일본 白山神社 소장</p>
 <p data-bbox="291 1566 529 1609">天下一藤原吉長銘 蓬萊文柄 鏡, 23,4cm, 양산 통도사 소장</p> <p data-bbox="557 1566 761 1609">藤原光長銘 蓬萊文柄鏡, 23,9cm, 울주 석남사 소장</p> <p data-bbox="789 1566 1005 1609">上○和泉守銘 蓬萊文柄鏡, 30,7cm, 순천 선암사 소장</p>	 <p data-bbox="1037 1566 1247 1609">蓬萊文柄鏡, 19세기, 일본 京都府立總合資料館 소장</p>

도 3 한국소재 蓬萊文鏡과 일본 紀年銘 蓬萊文鏡 비교

菊花雙鳥文鏡은 총 12점으로 발굴조사 출토품 6점, 국립 및 대학박물관 소장품 6점이 있다. 일본 국화쌍조문경의 이른 예는 12세기 후반의 建久二二年銘 菊花雙鳥文鏡이 알려져 있다.<sup>7</sup> 문양을 살펴보면 하단에는 洲浜이 펼쳐지고 雙鳥, 국화꽃과 잎이 흐트러져 전면을 메우고 있어 회화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연출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13세기 후반까지 지속된다.<sup>8</sup> 14세기에는 東京國立博物館 소장품과 같이 경배를 국화문으로 뺀 채워 농밀한 국향을 표현하고 상단에 간략화된 쌍조문을 배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왜경 중 국화쌍조문경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부터 이후의 것까지 모두 확인되는데 이를 일본의 거울과 비교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경북칠곡왜관유적 출토품은 建久二二年銘 菊花雙鳥文鏡과, 국립청주박물관 소장품·충북 충주 사미리유적 출토품은 東京國立博物館 소장품과 비교할 수 있다.<sup>9</sup>(도 4) 한편 충주 사미리유적 출토 거울은 開元

한국소재 蓬萊文鏡			일본 紀年銘 蓬萊文鏡
			
菊花雙鳥鏡, 11.2cm, 경북 칠곡 왜관유적 3구역 1호묘 출토	菊花雙鳥鏡, 11.4cm,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유적 1호 목관묘 출토	菊花雙鳥鏡, 11.3cm, 시대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2583)	建久二二年銘 菊花雙鳥鏡, 1193년, 일본 大門寺 釋迦如來像納入品
			
菊花雙鳥鏡, 10.5cm, 중원 누암리유적 출토,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菊花雙鳥鏡, 11.4cm, 충북 충주 사미리·조천리 토광목관묘 출토	菊花雙鳥鏡, 11.4cm, 충북 옥천 가풍리유적 C-가3호묘토광묘 출토	菊花雙鳥鏡, 13세기후반~14세기,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도 4 한국소재 菊花雙鳥文鏡과 일본 기년명경 비교

- 7 이 경은 동경 다이엔지(大門寺) 석가여래입상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경면에 「釋迦如來, 建久二二五月十六日, 丹治氏乙犬女の 線刻銘이 있다. 建久 재위기간은 1년부터 9년까지 이므로 22년은 오기인지 4년을 22년으로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建久4年是 1193년이다.(倉田文作 編, 『像內納入品』, 日本の美術 第86号(至文堂, 1974), p. 93)
- 8 동일한 문양구성의 일본 기년명경으로 스와진자(諏訪神社)에 소장된 '弘安元年'銘 菊花雙雀鏡이 있다. 경배에 針書가 있으며 弘安元年是 1278년이다.(広瀬都巽, 『扶桑紀年銘鏡圖說』(大阪市立美術館學報1, 1938), pp. 71-74)
- 9 국립청주박물관 소장품 2점은 충청북도 누암리 12-1호와 23-1호묘에서 각각 출토된 거울로 12-1호 출토품의 문양이 약간 흐려지기는 하였으나 2점 모두 菊花雙鳥文鏡으로 동일한 문양이다. 특히 누암리 23-1호 출토품은 京都國立博物館 소장품과 同型鏡으로 알려져 있다.

通寶·元豐通寶 등의 宋錢과 함께 출토되어 11세기까지 올려볼 수도 있지만 동일한 거울이 옥천 가봉리유적과 경북 칠곡 왜관유적에서 X자형 가위와 佛頭形의 동곳이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에 매납된 시기는 여말선초로 파악된다.<sup>10</sup>

家紋·文字文鏡은 총 9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4점, 기타 박물관 소장품 3점, 발굴조사 출토품 1점, 사찰 소장품 1점이다. 家紋은 헤이안시대 귀족이 마차나 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표식에서 발전한 것으로 가마쿠라시대를 거치면서 무사집단의 상징문양 또는 일상공예품의 장식문양으로 변화하였다.<sup>11</sup> 家紋文鏡은 17세기 후반에 등장하는데, 18세기 이후로는 家紋 대신 벽사나 길상의 뜻이 담긴 文字文으로 장식되거나 경배에 두 문양이 함께 배치되기도 한다.<sup>12</sup> 한국 소재 家紋文柄鏡은 특정 문양에 집중하지 않고 다종다양하게 家紋文이 확인되는데 국립박물관 소장품 4점, 의성 운암사 소장품, 종로 8지구 출토품이 있으며 文字文柄鏡은 코리아나박물관 소장품 2점이 확인된다.<sup>13</sup>

花鳥文鏡은 일본에서 이른 시기부터 제작된 경으로 한국 소재 왜경 중 화조문경에 속하는 예는 총 7점이다.<sup>14</sup> 서천 추동리유적 8호 토광묘 출토 거울은 청자병과 함께 元祐通



도 5 한국소재 家紋文鏡과 일본 家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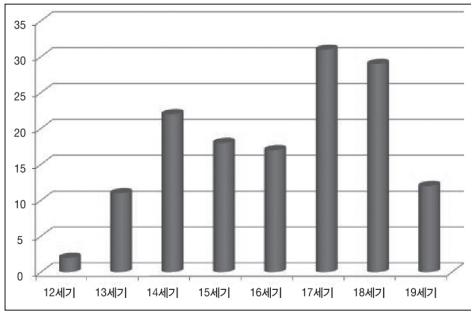
<sup>10</sup> 고려시대 전기까지의 가위는 8자형 가위이며 원간섭기를 지나면서 사용되는 것이 X자형 가위이다.(정의도, 「고려시대 철제가위(鐵鈇)연구」, 『慶文論叢』창간호(慶南文化財研究院, 2007), pp. 299-309) 한편 두부에 장식성이 가미된 불두형 동곳은 13세기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4세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두부에 진주등을 감장하거나 문양을 새겨 장식한 것은 조선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김순정, 「영남지역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동곳 연구」, 『문물』제4호(한국문물연구원, 2014. 6), pp. 188-228)

<sup>11</sup> 丹羽基二 外, 『日本の傳統文様』2-器物, 建造物文様/幾何文様/家紋他-(東京グラフィック社, 1990), pp. 121-123.

<sup>12</sup> 青木 豊, 『和鏡の文化史』(刀水書房, 1992), pp. 284-296.

<sup>13</sup> 일본에서의 家紋文은 가문별 문장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국내 소재하는 가문문병경의 문장은 대부분 에도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문장이므로 대략적인 지역구분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차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sup>14</sup> 화조문경의 모티브는 새가 꽃 또는 가지를 물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이러한 문양은 이른 시기 동아시아에 널리 유행하던 문양이다. 그러므로 이 거울이 和鏡이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일본에 소재하는 기년명경이 알려져 있고 중국의 거울에서는 찾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왜경으로 분류하였다. 차후 고려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양식변화와 상호교류 등에 대하여 재고할 여지가 있다.



도 6 한국 소재 왜경의 시기별 분포현황

寶, 崇寧重寶 등의 宋錢이 출토되어 12세기 후반에 매납된 것으로 생각된다.<sup>15</sup> 그러나 이외의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화조문경은 대부분 문양의 외곽선이 흐릿하고 계권 또한 이음새가 끊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再鑄鏡이며 일부는 문양 일부를 생략하거나 鈕座를 변형시킨 倣製鏡이다. 예를 들어 15세기 중반이후 조성된 임서부인묘 출토 왜경

은 13~14세기대의 화조문경을 방제한 거울로 적어도 15세기 이전에 국내로 유입 및 제작되어 실생활에 사용된 이후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한국 소재 왜경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여 대입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봉래문경은 14세기에서 19세기, 국화쌍조문경은 12세기 후반에서 15세기, 국화환문쌍조문경, 구갑쌍조문경, 일월산수쌍조문경 등은 14~15세기, 나머지 거울 일부는 12세기대의 것도 2점 확인되지만 대부분은 조선후기로 시기구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를 종합하여 표로 작성해보면 왜경은 일부 고려시대 유물도 확인되지만 주로 조선시대에 유입되었으며 17~18세기에는 좀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도 6)

그렇다면 이들 왜경은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의 기물이 국내 유입된 이후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유입경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朝鮮과 日本의 관계 역시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라 사신들의 왕래를 통한 朝貢貿易

<sup>15</sup> 서천 추동리 8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자병의 외면에는 연화당초문과 연판문이 음각되어 있다. 청자기법은 1108년 예종연간 이후 음각·양각·상형을 비롯한 철화·철백화 등의 기법이 등장하고 12세기 후반에 유행하였으며 부안 유천리 출토 연판문 대접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중점적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하면 본 유적은 12세기 후반대로 편년이 가능하다.

<sup>16</sup> 2010년 임서 선생((1373~1436)과 부인, 아들(임중강)의 분묘 이장 작업을 하던 중 확인된 일괄품으로 부안임씨 문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기증하였다. 이 중 임서 선생 부인 묘에서 동경 1점이 침통과 함께 출토되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억의 조각』 2012, p. 48)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린관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외교체제는 外交使節團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이 日本으로 파견하는 사절단으로는 通信使·回禮使·敬差官 등이 있으며, 일본이 조선으로 파견하는 사절단으로는 日本國王使·倭使 등이 있다. 이들 외교 사절단은 양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書契와 別幅를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進上和 回賜라는 절차를 통해 예단을 주고 받아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이때 교환된 예단은 양 국가를 대표하는 土產物(土宜)이자 동시에 주요 수출입 품목이기도 하다.<sup>17</sup>

조공무역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된 왜경에 대해서는 당시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사절단은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총 120여회에 달한다. 이에 『朝鮮王朝實錄』, 『通信使謄錄』, 『增正交隣志』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사절단이 일본에서 받은 別幅의 목록이 확인되는 예가 총 30건이며 이중 거울이 확인된 자료는 다음 <표 2>와 같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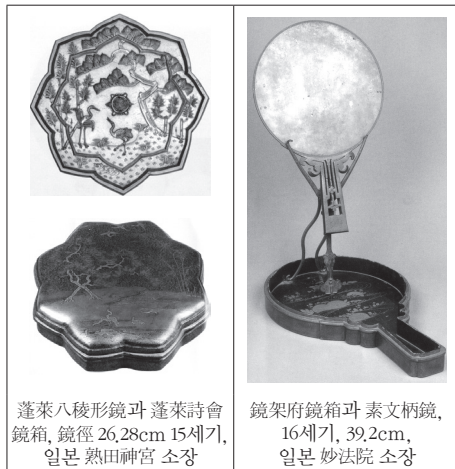
<sup>17</sup> 조선시대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朝貢貿易을 틀로 하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후 세부적인 양상을 달리한다. 조선전기에는 使送倭人과 興利倭人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송왜인이 浦所에 도착하면 경상도 관찰사가 보내는 差使員의 접대를 받았으며, 上京이 허락되면 서울의 東平館에 도착한 후 조선국왕을 拜謁하고 進上和 答賜의 절차에 의해 물품을 교환하였고, 남해안 일대의 여러 浦口를 중심으로 일본의 여러 國들과 교역이 가능했던 증충적인 무역구조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는 東萊府 倭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마번의 사절이 조선국왕에게 바치는 進上(후의 奉進)과 이에 대한 回賜 형태의 朝貢貿易, 年例八送使를 통한 公貿易, 私貿易, 潛商에 의한 密貿易으로 이루어졌다.(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신서원, 2000); 김덕진·변광석·이훈·정성일·池內敏, 『외교와 경제 : 조선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 通信使禮單을 통해서 본 朝日外交의 특징과 그 변화』, 『한일관계사연구』제26집(한일관계사학회, 2007); 한문중,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제21집(한일관계사학회, 2004); 金柄夏, 『朝鮮前期 對日貿易 研究』(한국학연구원, 1969); 李正守,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釜大史學』제22집(부산대학교 사학회, 1998);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太祖~成宗代를 中心으로-』, 『한일관계사연구』제24집(한일관계사학회, 2006); 金東哲,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港都釜山(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1993) 등의 저서 및 논문 참조.)

<sup>18</sup> 조선 정부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使節團은 총 120여회에 달하는데, 크게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일본행 사절단은 일본 국왕에게 파견된 18회와 대마도·일기도·유구국 등지로의 40회에 이른다. 당시 사절단의 명칭은 日本回禮使, 通事, 報聘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운다. 조선 후기 일본행 사절단은 1607년 回答使를 시작으로 易地聘禮의 1811년까지 12회에 달하는 조선통신사가 대표적이다. 한편 조선 후기 問慰行은 규모면에서 조선통신사행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1629년부터 1860년까지 쓰시마 전주의 에·경사를 위로·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4회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이러한 대일교역의 품목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기록으로는 『朝鮮王朝實錄』, 『通信使謄錄』, 『增正交隣志』, 『通文館志』, 『春官志』, 『備邊司謄錄』, 『邊例集要』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 『海行摠載』, 『東槎錄』, 『日觀記』 등의 기행문류가 있다.

표 2 조선사절단이 일본에서 받은 예물 중 鏡이 확인되는 사례

사절명	시기	회례처	내용
通信使	1655년 (효종 6)	日本國 幡摩州 4품 平義眞	시회대원경(蒔繪大圓鏡) 1面(『扶桑錄』)
通信使	1711년 (숙종 37)	日本國 對馬州 太守 平義方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奩鏡) 2面(『東槎錄』, 『通信使贈錄』第6冊)
通信使	1764년 (영조 40)	加番長老	팔촌염경(八寸奩鏡) 3面(『日觀記』, 『通信使贈錄』第12冊)

시회대원경(蒔繪大圓鏡)은 마키에(蒔繪) 기법으로 장식된 대형의 거울을 뜻한다. 일본에서의 마키에 기법은 헤이안(平安)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에도시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sup>19</sup>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鏡)과 팔촌염경(八寸奩鏡)은 彩畫로 裝飾된



蓬萊八稜形鏡과 蓬萊詩會  
鏡箱, 鏡徑 26.28cm 15세기,  
일본 熟田神宮 소장

鏡架府鏡箱과 素文柄鏡,  
16세기, 39.2cm,  
일본 妙法院 소장

화장상자(奩)에 담겨진 7寸, 또는 8寸 길이의 거울을 뜻하는데<sup>20</sup> 현재 일본에서는 거울과 거울상자가 set로 남아 있는 사례가 알려져 있어 당시 유입된 동경과 비교할 수 있다.(도 7)<sup>21</sup>

〈표 2〉에서 확인되는 왜경의 예는 3건에 불과하여 그 수량이 많지 않지만 당시 일본 幕府는 조선으로 보내는 回禮單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공력을 들였다.<sup>22</sup> 그러므로 진상품으로 채택된 공예품은 일본 내에서도 고가품에 속하는 기물이며 동시에 일본을 대

도 7 일본의 鏡과 鏡箱

<sup>19</sup> 거울을 마키에 기법으로 장식한 이른 시기의 예로 安土桃山時代の 梅樹蒔繪柄鏡이 있다.(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柄鏡大鑑』(ジャパン通信社, 1994), p. iv)

<sup>20</sup> 尺을 규정하는 단위는 시대별로 달리하는데 동일한 尺種이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짧거나 길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세종 12년(1430)에 제정된 표준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黃鐘尺 34.7cm, 周尺 20.795cm, 營造尺 31.220cm, 布帛尺은 46.703cm이다. 1902년 도량형제도의 대개혁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도량형은 일본의 曲尺(30.303cm)을 따르고 모든 척도의 표준인 元尺이 된다. 기록상 확인되는 일본 거울은 3寸에서 1尺까지 다양한 크기의 기물에 해당하는데 조선시대 길이를 재는 용도로는 주로 周尺을 이용하였으므로 이들은 6~20cm정도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sup>21</sup> 거울 상자를 칭하는 용어는 奩, 箱, 匣 등 혼용되고 있는데 시기 또는 지역적 차이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鏡箱에 대한 내용은 久保智康, 「鏡と鏡箱の謎をさぐる」, 『週刊朝日百科』『日本の國寶』39(朝日新聞社, 1997) 참조.

<sup>22</sup> 예를 들어 1811년 신미사행을 통해 증정한 10쌍의 금병풍의 경우, 화제의 결정과 화가 선정에서 완성작을 납품받아 대마도로 보낼 때까지 3년 반이 걸렸다고 한다.(洪善杓, 앞의 논문, p. 16.)

표하는 상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사절단이 조선으로 방문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전기에는 日本國王使의 조선 방문은 70회에 달하며<sup>23</sup> 그 밖의 다른 통교자들까지 합하면 4,840여회에 이른다.<sup>24</sup>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己酉約條) 이후 대마도 사신인 差倭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표 3)

표 3 日本使節團이 朝鮮으로 가져온 예물 중 鏡이 확인되는 사례

사절단명	시기	조선으로 유입된 경명과 수량
일본 국왕(日本國王) 사자(使者) 승전(承傳)	1456년(세조 2)	장렴(粧奩) 1副(『朝鮮王朝實錄』)
방장섭천사주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별가(大內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보낸 원주덕(源周德)	1473년(성종 4)	거울(鏡奩) 10面(『朝鮮王朝實錄』)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이 보낸 중(僧) 정구(正球)	1474년(성종 5)	경대(鏡臺) 1개(『朝鮮王朝實錄』)
관백고부차왜(關白告訃差倭)	1650년 이후 총 9차례	채화일척염경(彩畫一尺匣鏡) 1面(『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禮曹參議에게 보내는 書契의 別幅)
관백승습고경차왜(關白承襲告慶差倭)	1651년 4대장군부터 14대 장군까지 10차례	채화일척염경(彩畫一尺匣鏡) 1面(『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承襲告慶差倭, 禮曹參議에게 보내는 書契의 別幅)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1面(『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承襲告慶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도주승습고경차왜(島主承襲告慶差倭)	1658년 부터 1864년까지 13차례	채화일척염경(彩畫一尺匣鏡) 1面(『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島主承襲告慶差倭, 禮曹參判 書契의 別幅)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匣鏡) 1面, 채화경대(彩畫鏡臺) 1비, (『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島主承襲告慶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2面, 채화경대(彩畫鏡臺) 1비(『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島主承襲告慶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도서청개차왜(圖書請改差倭)	1658년, 1725년 2차례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3面(『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圖書請改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sup>23</sup> 『朝鮮王朝實錄』에서 日本國王使는 日本國使者, 日本國使臣, 또는 倭使라고도 표현되어 있다.(한일관계사학회,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새로운사람들, 2006), p. 221)

<sup>24</sup> 조선 정부는 조일무역에 있어서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선 정치·외교적으로는 무역왜인의 계층을 國王使, 諸巨僮使, 僮使(對馬島主와 그 一族, 受職·受圖書者 등)와 琉球使 등으로 나누어 접대에 있어 차별을 두었고, 경제적으로는 왜구의 중심지이자 영향력이 컸던 九州나 對馬島를 주 파트너로 설정하여 무역관계를 전개하였다.(李正守, 1998, 앞의 논문, pp. 122-124)

통신사청래차왜 (通信使請來差倭)	1636년부터 1841년까지 9차례	채화일적염경(彩畫一尺匳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請來差倭, 禮曹參議에게 보내는 書契의 別幅)
		채화팔촌염경(彩畫八寸匳鏡)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請來差倭, 釜山僉使에게 보내는 書契의 別幅)
통신사호행차왜 (通信使護行差倭)	1655년부터 1810년까지 7차례	채화일적염경(彩畫一尺匳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護行差倭, 禮曹參判 書契의 別幅)
		채화삼촌염경(彩畫三寸匳鏡)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護行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통신사호환차왜 (通信使護還差倭)	1643년 평성행 (平成幸)이 처음 은 이후 1810년 원장렴(源昌廉) 까지 총 8회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匳鏡)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護還差倭, 禮曹參判 書契의 別幅)
		채화경대(彩畫鏡臺) 2備,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匳鏡) 5면, (『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護還差倭, 禮曹參議 書契의 別幅)
		채화팔촌염경(彩畫八寸匳鏡)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通信使護還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관백퇴후고지차왜 (關白退休告知差倭)	1745·1760·1837년 3차례	채화일적염경(彩畫一尺匳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退休告知差倭, 禮曹參判 書契의 別幅)
		채화경대(彩畫鏡臺) 1備,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匳鏡) 1면, (『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退休告知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채화경대(彩畫鏡臺) 1備,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匳鏡) 2면, (『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退休告知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퇴휴관백고부차왜 (退休關白告訃差倭)	1632년부터 1841년까지 4차례	채화팔촌염경(彩畫八寸匳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退休關白告訃差倭, 禮曹參議 書契의 別幅)
		채화팔촌염경(彩畫八寸匳鏡) 1면 (『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退休關白告訃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도주퇴후고지차왜 (島主退休告知差倭)	1692년부터 1843년까지 5차례	채화팔촌염경(彩畫八寸匳鏡) 4면, 채화오촌염경(彩畫五寸匳鏡) 10면(『增正交隣志』, 島主退休告知差倭, 禮曹參判 書契의 別幅)
관백생자고경차왜 (關白生子告慶差倭)	1642·1763· 1793년 3차례	채화경대(彩畫鏡臺) 2備,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匳鏡) 1면(『增正交隣志』, 關白生子告慶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채화일적염경(彩畫一尺匳鏡) 1면(『增正交隣志』, 關白生子告慶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관백입저고경차왜 (關白立儲告慶差倭)	1705년부터 1867년까지 5차례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匳鏡) 3면(『增正交隣志』, 關白立儲告慶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관백생손고경차왜 (關白生孫告慶差倭)	1738·1814·1827년 3차례	채화일적염경(彩畫一尺匳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生孫告慶差倭, 禮曹參判 書契의 別幅)
		채화경대(彩畫鏡臺) 1개,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匳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生孫告慶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채화경대(彩畫鏡臺) 1개,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匳鏡)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關白生孫告慶差倭, 釜山僉使 書契의 別幅)

진하차왜(陳賀差倭)	1650년부터 1864 까지 11차례	원경병가(圓鏡並架)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陳賀差倭, 禮曹參議 書契의 別幅)
		채화일척염경(彩畫一尺匣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陳賀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표인영래차왜 (漂人領來差倭)	1627년 평성구(平成久)가 도래한 이래 1871년 평친 장(平親長)까지 총 629회	채화오촌염경(彩畫五寸匣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漂人領來差倭, 禮曹參議 書契의 別幅)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漂人領來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관수차왜(館守差倭)	1639, 1683년 2회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館守差倭, 禮曹參議 書契의 別幅)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2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館守差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타도표왜(他島漂倭)	1618년 울릉도에 삼미관(三尾關)의 어민들이 표착한 이래 1868년까지 75건	채화칠촌염경(彩畫七寸匣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他島漂倭, 禮曹參議 書契의 別幅)
		채화육촌염경(彩畫六寸匣鏡) 1면(『增正交隣志』第2권 差倭篇, 他島漂倭, 東萊府使 書契의 別幅)

일본사절단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된 거울에 대한 기록은 15세기 중반부터 확인되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주로 差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수량은 <표 3>에 제시된 사례만으로도 약 1,800면을 헤아린다.

差倭는 조선 후기 일본의 대마도에서 조선에 수시로 파견한 외교사절이다.<sup>25</sup> 그러나 이들 임시파견 차왜는 사신으로서의 임무 만이 아니라 그들은 조공무역의 원칙이 진상가와 회례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본 공예품을 가져와 진상하고 그에 응당하는 회례를 받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差倭는 조공무역의 경로를 통해 일본산 물품을 가져와 진상과 회례의 절차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보낸 사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소재하는 거울의 명문 중 受領國名銘을 통해 다시금 짐작이 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성 운암사·대구 파계사 소장품에서 확인되는 명문인 因幡守(いなばのかみ)는 지금의 일본 돗토리현(鳥取縣) 동부지역, 순천 선암사 소장품의 명문 和泉守(いずみのかみ)는 지금의 오사카부(大阪府) 남부지역, 부산 기장 용수리유적 출토 및 서울 은평수곡사·순천 송광사 소장품의 명문 薩摩守(さつまのかみ)는 지금의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서울 도선사 소장품의 명문 豊前守(ぶぜんのかみ)는 지금의 후쿠오카현(福岡縣) 부근

<sup>25</sup> 差倭는 1609년(광해군 1)에 己酉約條의 체결 당시, 상경을 요청한 대마사절에게 ‘島主差倭’라는 명칭을 붙인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일정한 목적을 띠고 書契와 別幅을 가지고 조선으로 방문하는 사절을 의미한다.



도 8 한국 소재 日本鏡에 보이는 受領国名銘

의 受領国名이다.(도 8) 모두 대마도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보이며 이는 곧 가까운 일본 내륙에서 동경을 구매하여 대마도를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편 조선시대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으로 약재류, 식품류, 동물류, 금속 및 염료 등의 原料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의 전통 공예품, 소위 調度로 분류되는 일상용품이 수입된 바 있다.<sup>26</sup>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연례팔송사를 통해 들어온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sup>27</sup> 1년 중 3월에 입항하는 特送船은 1년에 1점의 거울을 조선으로 수출하였으며, 즉 1642년부터 1702년까지 매해 1점씩 총 60점의 동경이 유입되었다.(표 4) 당시 공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銅과 단목, 호초 등 생산재의 原料가 중심이며 일상 공예품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이 포함되

<sup>26</sup>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 공예품에 대한 연구로는 金屏風과 도자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洪善杓, 「一七·一八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考古美術』143·144(한국미술사학회, 1979), pp. 57-60; 洪善杓, 「조선후기 韓·日間 書籍의 교류」, 『미술사연구』11(미술사연구회, 1997), pp. 3-22; 양홍숙, 앞의 논문, p. 159,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미술사논단』29, 한국미술연구소, 2009.12), pp. 197-222)

<sup>27</sup> 임진왜란에 의해 단절된 조일 간의 통교가 1609년(광해군 1) 기유약조(己酉約條)로 재개되면서 대마도에서는 대마도주 세견선(歲遣船) 20척, 수직인선(受職人船) 5척, 수도서선(受圖書船) 5척에 대해 매년 1회씩의 통교를 허용했는데, 이들을 연례송사(年例送使)라 한다. 연례송사는 1637년 겸대(兼帶) 제도가 실시되면서 모두 8개의 사절단으로 나뉘어 매년 1·2·3·6·8월 중에 각각 순번에 의해 정기적으로 도항하게 되면서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고도 한다.

표 4 조선의 수입(조선←일본, 1790)<sup>1)</sup>

	호초(斤)	명반(斤)	단목(斤)	황동(斤)	취동(斤)	수우각(本)	일본주(斤)
세견1선	500	300	1,025	2,800	645	435	2
세견2-17선	0	0	480	5,000	270	0	0
이정암선	200	0	340	800	160	0	0
특송선	2,500	900	2,100	13,900	3,322	0	6
만송원선	500	200	700	1,100	417	0	0
복주송선	400	0	1,100	4,000	1,582	0	0
계	4100	1,400	5,745	27,600	6,396	435	8
	문지(枚)	경(面)	환분(束)	연상	동야풍여	금소병풍(双)	동입수세(組)
세견1선	300	0	0	0	0	0	0
세견2-17선	0	0	0	0	0	0	0
이정암선	0	1	0	0	0	0	0
특송선	0	0	1	1	1	0	0
만송원선	0	0	0	0	0	1	1
복주송선	0	0	0	0	0	0	0
계	300	1	1	1	1	1	1

자료 : 『公貿易紀錄』, 일본 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1) 장성일, 앞의 책, p.209 수록 표 수정 게재.

었다는 점은 당시 거울이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해석된다.<sup>28</sup>

이외에도 개개인의 물물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역을 통해 왜경이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인 유학자 아메노모리 혼슈(雨森芳洲)가 조선에 머무르던 동안 작성한 『裁判記録』을 살펴보면 그가 왜관에 머물면서 명절이나 기념일에 조선 관리들과 선물을 교환하였던 기록이 있다. 이 때 차왜가 조선 관리에게 전해준 물품은 버루, 침통, 대나무 담뱃대 등의 생활공예품으로 목록 중에는 金革四角鏡, 溜塗六寸匣鏡, 四角鏡 등이 확인된다.<sup>29</sup>

조선측 관리들이 받은 선물은 주로 생활용품이나 사치품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림, 거울, 담뱃대, 우산, 주전자, 바늘, 저울, 칼 등이다. 조선측 관리들이 일본에 전한 답례품은 소고기(黃肉)를 비롯한 각종 음식물, 문방구, 비단, 의약품 등이었다. 당시 왜관의 조선

<sup>28</sup> 앞서 살펴본 조공무역의 관례인 進上과 공무역의 물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 규정된 조약에 따라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쓰시마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든 이름만 다를 뿐 실제내용은 둘 다 무역과 동일한 입장이었다.(정성일, 앞의 책.)

<sup>29</sup> 『裁判記録』에는 아메노모리 혼슈(雨森芳洲, 1668~1755)가 差倭로 조선에 체류한 1729~1730년에 조선인과 주고받은 선물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선물의 교류 대상자는 경상감사, 부산첨사, 감관, 역관 다수와 있었다. (양홍숙, 앞의 논문, p. 162.) 金革四角鏡은 금띠가 매달린 四角鏡이고 溜塗六寸匣鏡은 타메누리(ためぬり) 기법으로 만든 21cm 크기의 상자와 거울이다.

표 5 일본(雨森芳洲) 차왜가 조선 체류시 관리에게 준 선물

	1729년4월22일 (入船 선물)	1729년5월7일 (단오선물의 회례선물)	1729년7월18일 (백중 답례선물)	1729년9월9일	1730년 9월 4일 (일본귀환)
접위관	溜塗文匣硯 1備 上紋紙 100片 彩書中硯匣 1面 木大方針 1坐 朱竿烟器 6握 台皿 3枚	蒔繪光悅平硯匣 1面 金革四角鏡 1쌍 朱竿烟器 1對 陳皮 2斤 瑠璃久羽 1조 銅灸籠 1	-	溜塗六寸匳鏡 1面 朱蓋間鍋 1提 朱竿烟器 2握 四角鏡 1面 瑠璃酒盞 1組	일본산 거울, 가위, 담뱃대
동래부사	溜塗文匣硯 1備 上紋紙 100片 彩書中硯匣 1面 木大方針 1坐 朱竿烟器 6握 台皿 3枚	蒔繪光悅平硯匣 1面 金革四角鏡 1쌍 朱竿烟器 1對 陳皮 2斤 瑠璃久羽 1조 銅灸籠 1	木大輪圖 1坐 銅罐 1提 朱竿烟器 2握 木房小刀 1柄 瑠璃盞 1조 陳皮 3근 鐵銅灸籠 1대	溜塗六寸匳鏡 1面 朱蓋間鍋 1提 朱竿烟器 2握 四角鏡 1面 瑠璃酒盞 1組	일본산 거울, 가위, 담뱃대
훈도, 별차					五花糖 2斤

측 관리들은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두고 파견나온 地方官이었으며 재직시 받았던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점차 국내에 일본 물품이 유통하게 되었다.<sup>30</sup>

또한 조선통신사 기행문을 통해서도 일본의 기물이 선물로 교환되었음이 확인되는 데 대표적인 예로 『東槎日記』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차왜의 배 9척이 가까운 포구에 대고 바람을 기다리는데, 아침에 술과 생선을 보내어 존문(存問)하더니, 저녁에는 왜인 도선주(都船主)가 오화당(五花糖)과 신전초화자배(新田草畫磁杯)와 오촌경(五寸鏡) 등 물건을 바치고, 대차왜(大差倭)가 육촌경(六寸鏡)과 전도자(剪刀子), 왜등(倭燈), 유리병(瑠璃瓶) 등의 물건을 바쳤다.”(『東槎日記』 숙종 37년)

<sup>30</sup> 1688년(숙종 14) 8월 동래부사 이덕성은 知人인 金昌協에게 日本刀를 선물하였다. 김창협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적은 시에 '贈我日本金錯刀'라고 적혀 있으며 왜관 개시의 번성함을 함께 읊었다. 일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인의 접촉과 교류는 증가하고 점차 일본제품들이 조선의 시장으로 유입되고 사용되는데 19세기에는 蔚山과 金海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현상으로 인식된다. 한편 19세기 왜관 인근지역 일대의 번성함은 이학규의 『落下生集』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성진, 「19세기 초 金海人の 生活을 침식한 倭風」, 『지역문화연구』 제3호(경남부산지역문화학회, 1998), pp. 92-94; 양홍숙, 앞의 논문, p. 124); 부산박물관, 『반곡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부산박물관 기증유물도록 IV, 2009), pp. 178-180)

이상의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왜경의 총 수량은 조공무역 조선통신사 6점, 조공무역 차왜 1,841점, 공무역 연례팔송사 60점, 사무역 9점이다. 확인되는 기록만으로도 1,912점을 헤아리며 이들의 주된 유입경로는 차왜를 통한 경로이다. 이는 한국 소재 왜경이 17~18세기에 증가하는 점과 차왜의 활동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엇보인다.

#### IV. 유통배경

한국 소재 왜경 77점의 출토 및 소재지는 강원, 전라,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선 조선과 일본을 잇는 무역 교통로와 비교되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청나라 동전은 조선으로 수입한 뒤 녹여서 금속재료로 재사용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의 錢荒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조선시대 청나라 동전의 분포는 대체로 주전소가 있는 관아지 등이며, 왜경의 분포도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sup>31</sup> 왜경의 분포도는 조일무역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이는 곧 조선으로 유입된 후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청진동 유적의 15세기 건물지 문화층에서 14세기 日月山水雙鳥文鏡이 출토되었고 동일유적 18세기 건물지에서 16~17세기 天下第一銘柄鏡이 출토되었다.<sup>32</sup> 2점의 거울 모두 원래의 모티브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양이 희미하게 표현되었고 뉴좌를 생략하는 등의 제작법으로 보아 왜경을 방제한 거울이다. 청진동 유적은 조선 건국 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市塵行廊이 있던 장소이므로 이들 왜경은 조선으로 유입된 이후 상당기간 전세되고 재주 및 방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경주 문당동 유적에서는 화장 상자에서 왜경이 조선 백자가 함께 출토되었고<sup>33</sup> 서울 초안산 유적 토광묘에서는 15세기에 조선에서 사용된 朝鮮通報 15점이 함께 출토되었으며<sup>34</sup> 15세기의 인물인 임서(林叙)의 부인 묘에서 針筒과 함께 왜경이 출토되었다.<sup>35</sup> 일반적으로 분

31 이승일, 「조선 후기 請錢의 용도에 관한 연구」, 『문물』 창간호(한국문물연구원, 2011), pp. 239-247.

32 한울문화재단연구원, 『鐘路 淸進12~16地區 遺蹟』, 2013.

33 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김천 문당동유적』, 2008.

34 한강문화재단연구원, 『서울 초안산유적』, 2012.

35 주 17)참조



경북 김천 문당동유적 69호  
목곽묘 출토 화장상자

서울시 초안산 유적 1호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입서(林叙) 부인 묘 출토경과 針筒

도9 국내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기물과 함께 출토된 왜경

묘 유적에서 출토되는 器物은 피장자의 일상 생활용품으로 알려져 있는데,<sup>36</sup> 상기의 왜경 또한 조선시대의 일상 생활 속에 조선의 기물과 함께 실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9)

게다가 부산 용수리유적 2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獅子牡丹文柄鏡과 경기도 평택 지산동유적 II지구 6호 토광묘 출토 老松文柄鏡은 조선후기 분묘 부장품이다. 조선 후기에는 매장의례의 변화에 따라 분묘에 부장품을 거의 넣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경이 출토되는 점은 당시 왜경의 수요층과 선호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7</sup>

여기에서 왜경의 가격에 주목해보면, 『증정교린지』에 의하면 彩畫七寸匱鏡 1面の 가격은 대목 2필이다. 대목 2필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1716년 면포 1필의 가격은 그 품질과 관계없이 2냥으로 代錢한다는 조정의 방침이 정해졌고, 이 가격은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續大典』에 명문화된 이후 150여년 동안 고정되었다.<sup>38</sup> 비록 조선 전기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1필의 가격은 동전 2냥이며, 왜경의 가격은 면포 2필의 가격인 4냥으로 상정할 수 있다. 동전 4냥의 가치를 조선후기 경제사를 다룬 『彝齋難藁』나 『欽英』과 같은 일기 기록을 통해 계산해보면 당시 서울의 쌀값 시세는 매해 풍흉에

<sup>36</sup>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덤을 피장자가 사후세계를 사는 공간, 즉 유택으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피장자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을 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金銀慶, 「청자로 본 영남지역 고려시대 분묘」, 慶北大學校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2008, pp. 92-98.)

<sup>37</sup> 조선후기 일본산 물품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데 대체로 부산의 倭館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이학규의 『洛下生全集』의 기록에는 당시 영남지역의 倭風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동래부 사람 金京華는 칼을 애호하는癖이 있어 일본 단도 한자루를 순금 30냥의 값을 치르고 3년 만에 구입하였다’ 등의 기록을 통해 보면 일본 물품을 향유하는 계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성진, 「朝鮮後期 金海의 生活相에 미친 日本文物」, 『인문논총』5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김동철,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민족문화』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pp. 74-75)

<sup>38</sup>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서울대출판부, 2004), pp. 58-61; 박혜숙,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화폐단위 변역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제38호(민족문화사연구소, 2008), p. 210.

따라 결정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석에 5냥 정도였다. 조선 후기 종9품의 매월 녹봉이 쌀 10말과 콩 5말이었으므로 당시 유통된 왜경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sup>39)</sup>

이러한 왜경은 왕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연행시의 예물로도 사용되었다. 의궤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嘉禮, 冊禮, 諡號 등 왕실전례로 분류되는 행사인데 그중 17~18세기의 都監儀軌에서 왜경이 확인된다.<sup>40)</sup> 또한 『燕行紀』에 의하면 왜경은 중국으로의 연행시 예단으로 사용되었으며,<sup>41)</sup> 때로는 『阮堂全集』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조선으로 여행을 온 손님에

<sup>39)</sup> 조선 후기 쌀 1석의 가치는 당시의 녹봉제도를 검토하여 가늠할 수 있다. 『經國大典』戶典 祿科의 기록에 의하면 하급관리인 종9품의 1년간 녹봉은 쌀 9석, 보리 1석, 콩 3석, 면포 3필이며 직전 10결이 배당되었다. 녹봉은 매해 풍흉에 따라 지급량에 차이가 있었는데 명종 10년(1555)에는 직전이 폐지되었다. 선조 25년(1592)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관료들의 녹봉을 감축하면서 월봉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영조 22년(1765)에 발행된 『續大典』에 의하면 종9품의 녹봉은 매월 쌀 10말과 콩 5말이다. 조선 후기 平石으로 1石은 15斗이므로 당시 거울 1면의 가격은 종9품의 1개월 녹봉을 조금 웃돌게 된다.

<sup>40)</sup> 朝鮮王朝儀軌에서 확인되는 왜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시기	의궤	내용
1	1638년 (인조 16)	인조장렬왕후 가례도감의궤	병경 하나를 왜경으로 대신하여 사용한다. (“…有柄鏡壹代倭鏡壹實用…”,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三房器皿色, 十月十二日)
2	1651년 (효종 2)	현종명성왕후 가례도감의궤	큰 거울 2개를 호조에서 진배한 왜경으로 사용한다. (“…大鏡二部以戶曹上倭鏡進排…”,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一房, 辛卯七月二十三日) 큰 거울 2개를 호조에서 진배한 왜경을 되부어 만든 것으로 사용한다. (“…大鏡二部勿爲鑄成以戶曹上倭鏡進排…”,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 一房, 辛卯八月初四日)
3	1671년 (현종 12)	숙종인경왕후 가례도감의궤	큰 거울 2개를 호조에서 진배한 왜경으로 사용한다. (“…大鏡二部以戶曹上倭鏡進排…”,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附儀軌, 康熙十年辛亥四月 日 一房儀軌) 왜경 2개. (“…倭鏡二部…”, 『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附儀軌, 康熙十年辛亥四月 日 一房儀軌)
4	1681년 (숙종 7)	숙종인현왕후 가례도감의궤	병경하나를 왜경으로 대신한다. (“…有柄鏡一代倭鏡…”,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別宮進排) 병경하나를 왜경으로 대신한다. (“…有柄鏡一代倭鏡…”, 『肅宗仁顯王后嘉禮都監儀軌』, 嘉禮時臚錄付措備物種)
5	1696년 (숙종 22)	경종단의왕후 가례도감의궤	큰 거울 3면을 호조가 올린 왜경으로 취한다. (“…大鏡三面以戶曹上倭鏡取…”, 『景宗端懿王后嘉禮都監儀軌』, 附儀軌, 康熙三十五年五月 日 一房儀軌, 丙子五月初二日)
6	1725년 (영조 1)	효장세자 가례도감의궤	큰 거울 3면을 호조에 있는 왜경으로 취하다. (“…大鏡參面以戶曹所在倭鏡取…”,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稟目秩, 丁未八月二十日)
7	1744년 (영조 20)	사도세자 가례도감의궤	큰 거울 3면을 호조에 있는 왜경으로 취하다. (“…大鏡三面以戶曹所在倭鏡取…”,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稟目秩, 癸亥十一月初二日)
8	1762년 (영조 38)	정조효의왕후 가례청의궤	별궁에 진배하는데…주칠을 한 왜의 경대…(“別宮進排…倭朱漆鏡臺…”,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 一房儀軌)

<sup>41)</sup> “陰, 留南館, 工部尙書金簡, 求竹淸紙, 以三百葉送副, 且伴野笠一頂, 倭鏡一面, 白紬二疋, 白棉布二疋, 彩花席十張, 雪花紙五束, 淸心元三十九, 扇三十柄…”(『燕行紀』, 起圓明園至燕京, 二十四日壬申)



도 10 조선 후기 분묘 출토 왜경

게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sup>42</sup>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울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시 왜경은 일상생활에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왜경이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양할 것인데, 그 중 하나로 조선시대 공예 정책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관영수공업 체제 하에 국가는 왕실 朝儀와 祭儀 및 중국에 보낼 進獻方物 등 각종 儀禮用 공예품과 일상용 공예품에 대해 각기 뚜렷이 변별되는 제작 형식상의 지침을 세우고 법제화 하였다.<sup>43</sup>

『經國大典』에는 工匠의 登錄法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선왕조의 모든 기술자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法은 조선초기에는 잘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체 내의 여러 가지 모순성과 통치체제의 이완 등으로 인하여 16세기 전후로 붕괴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울의 경우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燕山君이 늦화로 큰 것 50개·중간 것 50개와 늦향로 큰 것 50개, 중간 것 50개를 工曹에서 지어 들이게 하였으나, 인원부족으로 私匠을 들였으며,<sup>44</sup> 같은 해 尙衣院에게 거울 20개를 만드는데도 관장이 부족하여 사장을 동원하였다.<sup>45</sup> 또한 中宗 때에는 관장의 부족으로 사장을 동원한 예가 빈번하였으며,<sup>46</sup> 中宗 26년에는 정부에서 벌인 공사에 동원된 工匠 100여명은 모두 私匠이었다는 기록이 있다.<sup>47</sup> 이러한 점으

<sup>42</sup> “내가 일찍이 화제경(和製鏡)을 중국의 여러 명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풍안해(馮晏海)가 아울러 수집하여 금색의 고각(高刻) 속에 각(刻)하여 넣었다.”(“…仿懷人詩體 歷敘舊聞 轉寄和舶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阮堂全集』제9권)

<sup>43</sup> 일상용 공예품에 대한 국가 정책은 '生財論'에 토대를 둔 절용주의적 이념이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사치스러운 공예품의 제작을 제한하고 절제된 소비생활에 중점이 된다.(崔公鎬,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美術史學研究』194·195호(한국미술사학회, 1992), pp. 77-87)

<sup>44</sup> 傳曰 “鑪火爐大五十, 中五十, 鑪香爐大五十, 中五十令工曹鑄入.” 王多內寵, 日以造供御器服, 賞賜之物爲事, 如工曹, 尙衣院, 濟用監等司, 疲於工造, 官吏監督, 猶不能及, 至被刑杖. 工人不足, 盡括私匠, 日役官門, 不得謀衣食, 民間騷然, 怨咨盈路. 又聚工匠于闕內, 百役俱興, 料給之費不可勝數, 府庫一空(『燕山君 日記』卷 53, 연산군 10년 5월 己亥條)

<sup>45</sup> 尙衣院啓: “命造鏡二十, 而鏡匠數少, 請竝役私匠.” 傳曰: “可.”(『燕山君 日記』卷 53, 연산군 10년 5월 癸卯條)

<sup>46</sup> 前者, 大臣及臺諫, 於經筵, 以百工伎藝之事啓之曰 ‘各司匠人, 雖有一二能才者, 官員或役以他事; 或以丘史帶率, 其於伎藝, 未能專業. 故成才者數少, 若有事則每以私匠役之, 至爲有弊.’(『中宗實錄』卷 53, 중종 23년 정월 癸未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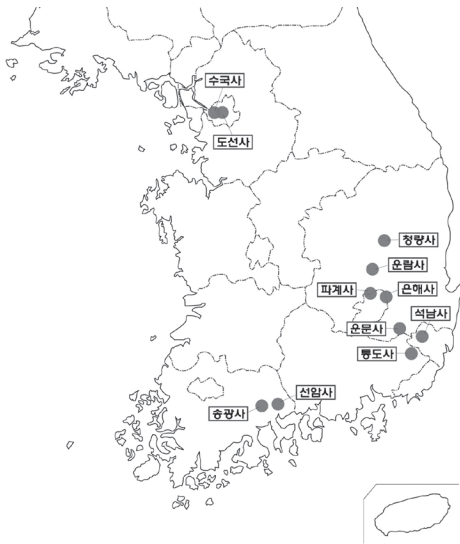
<sup>47</sup> 夫三處役軍, 雖以留衛軍爲之, 匠人百餘名, 則皆私匠人.(『中宗實錄』卷 70, 중종 26년 5월 丁酉條)

로 미루어 관영수공업은 16세기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붕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울은 고려시대에 사상 및 신앙의 상징적 의미가 강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화장용 구로서 정착되고 일상 생활용품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거울 또한 제작과 유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장제의 붕괴와 함께 私匠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체제 아래에서는 새로운 문양을 개발하기 보다는 판매를 위한 대량생산 및 선호도에 집중한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明代 이후 유리거울의 보급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銅鏡의 문양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한경이나 송경의 재주 및 방제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清代 말기에는 동경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든다.<sup>48</sup>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다종다양한 왜경은 일부 선호 계층을 형성하면서 국내 유통망에 자연스럽게 합류되었다 생각된다.<sup>49</sup>

한편 왜경이 사찰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흥미롭다. 사찰은 일상 생활용품으로서

의 거울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선사, 수국사, 청량사, 운람사 등 총 11곳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중에 사찰의 복장물에서 나오는 경우는 의성 운람사, 봉화 청량사, 대구 파계사의 불상 등이다. 일본의 거울이 사찰에서 확인되는 근거는 확실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왜경이 남아 있는 사찰 위치를 통해 짐작은 가능하다. 즉 양산, 청도, 대구, 영천, 의성, 서울 지역에 있는 사찰들로서 이를 지도상에 표시해보면, 조선통신사의 길과 관련성을 보인다.(도 11)



도 11 왜경 소재 사찰 분포도

조선통신사의 기행록에는 당시 조선

<sup>48</sup> 陈晴 主編, 『古鏡』(世紀出版集團上海書店出版社, 2003), pp. 136-137; 管維良, 『中國銅鏡史』(重慶出版社, 2006), pp. 336-356.

<sup>49</sup> 선호 계층에 대해서는 주 26) 참조. 조선후기에는 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본내 수용자(주문자)에 의해 대일 교역용 회화가 상업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으며, 일본인이 주문한 茶碗을 생산하기 하였다. 이러한 상업활동은 일종의 선호 계층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최경화, 앞의 논문; 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 吳器茶碗을 중심으로」(『미술사연구』24, 미술사연구회, 2010), pp. 97-108; 박성희, 「18·19세기 동래 왜관 수출화의 제작과 유통 : 虎圖와 鷹圖를 중심으로」(『미술사논단』31, 한국미술연구소, 2010.12.), pp. 79-102).

표 6 조선통신사 사찰 방문기록

기행문명(저자)	일시	내용
東槎錄(홍우재)	1682.11.7	대구에서 조반을 먹고 송림사(松林寺) 점심, 지대관인 군위 신서화가 방문하여 그에게 침도자(枕刀子) 등 여러 물건을 줌
東槎日錄(김지남)	1682.11.7	평명을 떠나서 송림사(松林寺) 점심
日觀記(남옥)	1764.6.25	부산 범어사(梵魚寺) 휴식
	1764.6.30	대구를 출발하여 송림사(松林寺) 점심
海槎日記(조업)	1764.6.30	송림사(松林寺) 점심
日東記遊(김기수)	1876.	부산 범어사에서 1박을 하고, 양산 통도사에서 1박하다
日槎集略(이현영)	1881.7.6	일행 중 심령은 동래 국청사로 가다
	1881.7.6	부산 범어사에서 1박
	1881.7.7~7.25	양산 통도사 19박
	1881.7.17	일행 중 엄령이 영천 은혜사로 가다
	1881.8.14	봉은사에서 아침식사



도 12 부산 운수사에서 확인된 해련사 상과 명문



통신사가 사찰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 1671년 통신사 홍우재는 송림사에서 枕刀子 등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며, 1881년 수신사 이현영은 양산 통도사에서 19일간 머무르기도 하였다. 양산 통도사에는 현재 왜경 5점이 전해지는데 이 중 2점의 병경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것으로 편년되어 관련성이 엇보인다.(표 6)

최근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물이 사찰에서 확인된 예도 있다. 부산 영도 바닷가에 위치한 해련사에 있었던 상으로 내측에 ‘信行水營執事 朴秀亮 李英俊 辛未三月初八日過 賜宴後願付本府府司印床’이라는 묵서명이 확인된다.<sup>50</sup>(도 12)

이 床卓은 난간을 가진 천판과 호족형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판의 윗부분이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판은 육각형이고 하판은 방형이다. 다리는 당초문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다리 고정판은 십자형으로 교차되어 있다. 이 상탁은 육각의 천판으로 보아

<sup>50</sup> 이 상은 2013년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운수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원래는 부산 영도 바닷가에 위치한 해련사에 있었던 것으로 폐찰되는 시기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향이나 초를 놓았던 香座兒일 가능성도 있으나 난간, 다리 받침 등으로 보아 연향가구 중 하나인 후로 판단된다. 묵서명을 통해 당시 공식적인 잔치인 사연이 운수사에서 열렸다는 점이 확인되며 이 상은 本府, 즉 동래부에서 빌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朴守良과 李英俊은 두 사람 모두 좌수영 장교였던 사람으로 각각 正使와 副使의 집사로서 신미사행에 참여한 사람이다.<sup>51</sup>

1811년 신미사행 기록 상에는 3월 8일에 해련사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sup>52</sup> 이 상을 통해 당시 통신사 일행이 사찰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치렀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는 당시 사찰이 조선통신사의 이동경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아울러 조선시대 왜경이 유통되는 또 다른 배경 중 하나라 생각된다.

## V. 맺음말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왜경에 대한 현황과 특징, 유통경로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경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점에서 두 나라간 외교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왜경은 주로 일본의 사신인 차왜의 진상품으로 유입되어 국내에 유통되었으며 현재 발굴 조사된 분묘에서 출토되거나, 전세되어 박물관에 남아 있거나, 또는 사찰 등 다양한 곳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매장의례의 변화에 따라 분묘에 부장품을 거의 넣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경이 출토되는 점은 당시 왜경의 수요층과 선호

<sup>51</sup> “庚午 十二月十二日 使臣 除授 命下 正使 副提學 金履喬 甲申生 安東人…執事 朴守良 左水營校…副使 副司直 李勉求 丁丑生 完山人…執事 李宜俊 左水營校…”, 『東槎錄』

<sup>52</sup> 신미사행 時 일본으로 도해하기 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일정
순조 10년(1810) 12월 12일	사신 임명
순조 11년(1811) 2월 12일	서울 출발
순조 11년(1811) 3월 1일	동래 도착
순조 11년(1811) 3월 6일	국서조대
순조 11년(1811) 3월 9일	영가대 잔계
순조 11년(1811) 3월 12일	영가대에서 해신제 거행
순조 11년(1811) 3월 16일	승선 원정일
순조 11년(1811) 윤 3월 12일	진시에 발선
순조 11년(1811) 윤 3월 13일	오시에 대마도 도착

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왜경은 왕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중국으로의 연행 시 예물로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찰 소장 왜경은 실제 남아 있는 기물과 문헌기록이 부합되는 좋은 자료로서 불상복장물의 납입품으로도 활용되었다. 왜경을 소장한 사찰의 분포는 조선통신사의 이동경로와도 관련되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조선시대 거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전반적인 특징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경의 유입과 유통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조선시대 거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한 유물열람 및 사진자료를 도와주신 불교중앙박물관, (재)부경문물연구원, (재)삼강문화재연구원, (재)한울문화재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주제어(Key Words)\_왜경, 분묘, 거울, 봉래문경, 병경, 조일무역, 차왜, 통신사

■ 투고일 2014년 8월 23일 | 심사개시일 2014년 8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0월 14일 ■

부록 1 한국 소재 왜경 현황

번호	경명	출토지(소장처)	크기(cm)	공반유물 및 명문내용
1	蓬萊文鏡	서울시 은평 진관동 분묘군 III-2-124호 토광묘	7,9	-
2	日月山水雙鳥文鏡	서울시 초안산 유적 1호 토광묘	9,3	조선통보15점, 관정8점
3	日月山水雙鳥文鏡	서울시 종로 청진동 150번지 건물지 4분화층	7,9	백자, 청화백자, 청동술, 소승자총통 등 다량의 유물
4	家紋文柄鏡	서울시 종로 청진동 76번지 3분화층 나지역	15,9	天下一銘
5	菱文龜鶴文鏡	경기도 여주 월성리유적 10호 토광묘	12,7	빗, 철제가위, 청동가라치, 청동술가락
6	松枝文柄鏡	경기도 평택 지산동유적 II지구 6호 토광묘	19,6	백자소호, 석제구슬
7	蓬萊文鏡	충북 영동 법화리유적 A-1호 토광묘	10,0	-
8	菊花雙鳥文鏡	충북 옥천 가풍리유적 C-가3호 토광묘	11,4	동곳1점, 철제가위1점, 빗1점
9	菊花雙鳥文鏡	충북 충주 사미리·조천리 토광목관묘	11,4	개원통보4점, 상부통보2점, 황송통보2점, 원풍통보1점, 송녕중보7점, 철제가위1점, 미상철기2점, 관정10점
10	片輪雙鳥文鏡	충남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I) 9호 토광묘	11,0	백자대접 2점, 백자접시6점, 중국제청화백자 고족배1점, 장군1점, 철도자4점, 관정25점, 철기2점, 청동술가락3점, 청동발3점, 청동합, 청동완2점, 청동종지, 청동주전자
11	菊花雙鳥文鏡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유적 1호 목관묘	11,4	-
12	花鳥文鏡	서천 추동리유적 8호	10,0	청자유병, 청자병, 청동발, 청동술가락, 철판, 원우통보2, 원풍통보, 송녕중보5, 송녕통보, 희녕중보, 관못3
13	蓬萊文鏡	전주시 마전유적 I구역 1호	8,0	청동방울6점, 청동술가락
14	菊花雙鳥文鏡	경북 칠곡 왜관 일반지방산업2단지유적3구역1호 토광묘	11,2	철제가위, 관정9점
15	柄鏡	경북 김천 문당동유적 69호 목곽묘	-	백자대접2점, 상평통보, 락잠, 유기물 등
16	掬水杓雙鳥文鏡	경남 김해 구산동 유적 621호분 목관묘	18,9	동시1점, 철협1점, 철검1점, 황옥3점, 관정13점
17	龜甲雙鳥文鏡	경남 김해 구산동 유적 700호 목관묘	9,6	관정5점
18	牡丹獅子文柄鏡	부산 기장 용수리 유적 2호 토광묘	21,3	동잠1점, 津田薩馬守銘
19	龜甲雙鳥文鏡	김해 구산동 유적 190호분	17,2	동시1점, 동저1점, 관정29점
20	花鳥文鏡	임서선생 부인묘	8,0	침통1점
21	菊花環圓文鏡	청양 장재리2유적 1지점 3호	8,85	-
22	菊花雙鳥文鏡	충북 충주 누암리 12-1호 토광목관묘	10,5	청동술가락, 청동젓가락, 철검
23	菊花雙鳥文鏡	충북 충주 누암리 23-1호 토광목관묘	-	-
24	菊花雙鳥文鏡	개성부근 출토(덕1819)	11,2	-
25	菊花雙鳥文鏡	개성부근 출토(덕2583)	11,3	-
26	菊花雙鳥文鏡	개성부근 출토(덕90)	10,9	-
27	菊花雙鳥文鏡	고려고분 출토(본4325-67)	10,8	-
28	龜甲雙鳥文鏡	출토지 미상(본4325-66)	9,5	-
29	龜甲雙鳥文鏡	고려고분 출토(본2674)	7,7	-
30	菊花環圓文鏡	개성부근 출토(덕2714)	10,9	-
31	菊花環圓文鏡	고려고분 출토(본2673)	11,0	-
32	花鳥文鏡	개성부근 출토(덕80)	10,6	-
33	花鳥文鏡	개성부근 출토(덕249)	10,5	-
34	花朶文鏡	개성부근 출토(덕198)	9,0	-
35	蓬萊文長方形鏡	출토지 불명(덕177)	18,3×14,2	-
36	日月山水雙鳥文鏡(누각무늬거울)	신안해저 인양(신안9924)	11,5	

37	梅竹文柄鏡	함경북도 성진군 학서면 원평동 출토(본11293)	20,8	天下一松村因幡守銘
38	蓬萊文柄鏡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 주포리 출토(신2678)	23,3	天下一松村因幡守銘
39	家紋文柄鏡	파주군 파평면 울곡리 출토(신456)	24,5	天下一松村因幡守銘
40	南天文鏡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출토(본8435)	11,2	松村因幡守銘
41	花文方形鏡	전 통도사(신2307-2)	8,5×5,8	天下一作銘
42	人物故事文柄鏡	경북 경주 영천 출토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	天下一銘
43	家紋文柄鏡	경북 경주 영천 출토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	天下一松村因幡守銘
44	家紋文柄鏡	경북 경주 동천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	天下一因幡守銘
45	虎文柄鏡	출토지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7,0	天下一銘
46	雙鳥文方形鏡	신안해저인양품(신안11646)	17,5×15,3	-
47	家紋文柄鏡	경기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	18,8	藤原作銘
48	柴垣梅樹圖柄鏡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18,5	-
49	花朵文柄鏡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19,5	天下一銘
50	花鳥文鏡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13,4	-
51	松枝文柄鏡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17,4	-
52	家紋文柄鏡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22,3	藤原慶長銘
53	花朵文鏡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8,7	天下一銘
54	菊花雙鳥文鏡	경북대학교박물관(경327)	11,4	-
55	菊花雙鳥文鏡	경북대학교박물관(경1323)	11,3	-
56	文字文柄鏡	서울 코리아나화장박물관	16,3	-
57	文字文柄鏡	서울 코리아나화장박물관	-	-
58	文字文柄鏡	목아박물관 소장품	(13,0)	藤原光長銘
59	山水雙鳥文鏡	태평양박물관 소장품	7,3	-
60	蓬萊文鏡	서울 도선사 소장품	(12,2)	松岡豊前守藤原吉次銘(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9호 도선사 청동 종 및 일괄 유물)
61	南天文柄鏡	서울 은평 수국사 소장품	12,7	津田薩摩守銘
62	牡丹獅子文柄鏡	서울 은평 수국사 소장품	22,0	藤原光長銘
63	家紋文柄鏡	경북 의성 운암사 소장품	17,2	天下一松村因幡守銘(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8호 의성 운암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과 복장 일괄유물)
64	山水雙鳥文鏡	경북 의성 운암사 소장품	8,7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8호 의성 운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 일괄유물)
65	蓬萊文鏡	봉화 청량사 소장품	8,8	-
66	蓬萊文鏡	대구 파계사 소장품	21,0	天下一松村因幡守銘(보물 제992호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67	花鳥文鏡	영천 은혜사 소장품	8,8	-
68	蓬萊文柄鏡	울주 석남사 소장품	23,9	藤原吉政銘
69	花鳥文柄鏡	경남 청도 운문사 소장품	25,1	天下一作銘
70	花鳥文鏡	경남 양산 통도사 소장품	10,3	-
71	蓬萊文鏡	경남 양산 통도사 소장품	8,0	天下一銘
72	蓬萊文柄鏡	경남 양산 통도사 소장품	8,0	天下一銘
73	蓬萊文柄鏡	경남 양산 통도사 소장품	23,4	藤原吉重銘
74	蓬萊文柄鏡	경남 양산 통도사 소장품	19,6	天下一藤原吉長銘
75	蓬萊文柄鏡	전남 순천 선암사 소장품	30,7	上○和泉守銘
76	家紋文鏡	전남 순천 송광사 소장품	10,5	天下一銘
77	蓬萊文鏡	전남 순천 송광사 소장품	14,0	津田薩摩守銘

## 참고문헌

### 1. 사료·문집

『朝鮮王朝實錄』  
『增正文隣志』  
『通文館志』  
『通信使謄錄』  
『海行摠載』

### 2. 단행본

岡田 譲編, 『調度』, 日本の美術 第3号, 至文堂, 1969.  
管谷文則, 『日本人と鏡』, 同朋舎出版, 1991.  
管維良, 『中國銅鏡史』, 重慶出版社, 2006.  
広瀬都巽, 『扶桑紀年銘鏡圖說』, 大阪市立美術館學報1, 1938.  
\_\_\_\_\_, 『和鏡の研究』, 角川書店, 1974.  
久保智康編, 『中世・近世の鏡』, 日本美術 第394号, 至文堂, 1999.  
慶南考古學研究所, 『金海 龜山洞 遺蹟』, 200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김천 문당동유적』, 2008.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여주 교리·월송리 유적』, 2008.  
京都國立博物館, 『京都社寺調査報告(妙法院)』, 1997.  
국립중앙박물관, 『일본미술명품』, 솔출판사, 2002.  
\_\_\_\_\_, 『고려동경-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2010.  
\_\_\_\_\_,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1, 2012.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1999.  
기호문화재연구원, 『忠州 沙美里·釣川里遺蹟』, 2012.  
부경문화연구원, 『기장 용수리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약보고서』, 2012.  
부산박물관, 『반곡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 부산박물관 기증유물도록 IV, 2009.  
小林達雄 監修, 青木豊・内川隆志 編著, 『柄鏡大鑑』, ジャパン通信社, 1994.  
李蘭暎, 『韓國의 銅鏡』,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_\_\_\_\_, 『高麗鏡 研究』, 도서출판 신유, 2003.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2004.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 中野政樹 編, 『和鏡』, 日本の美術 第42号, 至文堂, 1969.
- 中央文化財研究院, 『恩平 津寬洞 墳墓群』, 2008.
- 中原文化財研究院, 『平澤 芝山洞遺蹟』, 2006.
- \_\_\_\_\_, 『永同 法化里遺蹟』, 2007.
- \_\_\_\_\_, 『沃川 加豐里Ⅱ遺蹟』, 2011.
- 中村潤子, 『鏡の力 鏡の想い』, 大巧社, 1994.
- 陈晴 主編, 『古鏡』, 世紀出版集團 上海書店出版社, 2003.
- 倉田文作 編, 『像内納入品』, 日本の美術 第86号, 至文堂, 1974.
- 青木 豊·内川 隆志, 『柄鏡大鑑』, (株)日本形色, 1994.
- \_\_\_\_\_, 『和鏡の文化史』, 刀水書房, 1992.
-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초안산 유적』, 2012.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倭館 一般地方産業2團地 進入道路(2단계) 遺蹟』, 2009.
-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Ⅰ』,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Ⅰ』(제2권),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Ⅱ』(제1권),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 『한국의 사찰문화재-서울특별시』,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 한울문화재연구원, 『鐘路 淸進8地區 遺蹟』, 2013.
- \_\_\_\_\_, 『鐘路 淸進12~16地區 遺蹟』, 2013.
- 한일관계사학회,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 새로운사람들, 200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증유물 기억의 조각』, 2012.
- 湖南文化財研究院, 『全州 馬田遺蹟(I·II)』, 2008.

### 3. 논문

- 權珠英, 「여말선초 梵字文柄鏡 연구」, 『중헌 심봉근박사 고회기념논선집』, 2012.
- 김덕진·변광석·이훈·정성일·池内敏, 「외교와 경제 : 조선후기 통신사외교와 경제시스템 - 通信使 禮單을 통해서 본 朝日外交의 특징과 그 변화」, 『한일관계사연구』제26집, 2007, pp. 181-231.
- 김동철,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민족문화』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pp. 56-82.
- 박혜숙,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화폐단위 번역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제38호, 2008, pp. 203-233.
- 정의도, 「고려시대 철제가위(鐵鋏) 연구」, 『慶文論叢』창간호, 慶南文化財研究院, 2007.
-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太祖~成宗代를 中心으로-」, 『한일관계사연구』제24집, 2006, pp.

27-68.

-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李正守,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역사와 세계』22집, 효원사학회, 1998, pp. 119-176.
-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미술사논단』29, 한국미술연구소, 2009.12.
- 崔公鎬, 「朝鮮初期의 工藝政策과 그 理念」, 『美術史學研究』194·195호, 1992.
- 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4호, 2010.
- 한문중,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제21집, 2004.
- 황정숙,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 文樣의 象徴性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4. 사이트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국문초록

왜경이란 和樣으로 장식한 일본의 거울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和鏡이라 부른다. 한국 소재 왜경의 사례는 현재까지 77점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동경은 22점이고 나머지는 국내 박물관 및 사찰의 소장품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왜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조선시대에 유입된 배경 그리고 유통의 문제와 그 배경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왜경을 분석하여 이를 일본의 紀年銘鏡과 비교해 본 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17~18 세기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왜경의 형식도 다양한 문양과 형태를 보인다.

조선시대 왜경이 유입된 경로는 『朝鮮王朝實錄』, 『通信使謄錄』, 『增正交隣志』, 『海行摠載』 등의 문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왜경의 유입경로는 조·일 사절단의 예단으로서 조공무역에 의한 경로와 연례팔송사를 대표하는 공무역을 통한 경로, 차왜 및 당시 관리들 간의 사사로운 선물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경로 등이 있다. 문헌조사 결과 왜경은 차왜가 조선에 예물로 가져온 것이 주된 경로로 판단되며 이들 차왜의 활동시기는 조선시대 왜경이 급증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왜경은 조선통신사의 예물 증답품 중 하나로 채택할 만큼 일본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내 銅製 工藝品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꾸준히 銀과 銅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淸錢의 경우 국내 鑄錢所로 옮겨져 常平通寶 제작의 원료로 사용된 예가 있다. 그러나 왜경은 서울 청진동유적과 김천 문당동 유적, 임서선생 부인 묘의 출토 예를 통해 실제 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찰의 불교의식구로 활용되어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문헌기록으로도 왜경은 왕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중국으로의 연행 시 예물로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조선시대 관장제도의 붕괴에 따른 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체제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왜경의 가격 및 선호도 등 여러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왜경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의 위치가 조선통신사의 경로와 일치하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조사된 부산 해련사의 床卓의 밑면에서 1811년의 신미사행 당시 통신사 일행이 사찰을 방문하였고 그 때 사용되었던 기물임이 확인되는 墨書가 발견된 바 있다. 이는 당시 사찰이 한일 교류사를 대표하는 조선통신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아울러 조선시대 왜경이 유통되는 또 다른 배경 중 하나라 생각된다.

## Abstract

# The Transmission of Japanese Mirrors in Joseon

**KWON Joo Young**\*

Many Japanese mirrors are found in Korea. Seventy-seven examples are known in various collections, and twenty two of them are excavated piec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mirrors brought to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how they were distributed nationwide. A comparison of Japanese mirrors found in Korea those with inscribed dates in Japan shows that Japanese Joseon periods, and more specifically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se mirrors are diverse in their patterns and shapes.

Regarding how the mirrors were brought to Joseon, explanations are given in various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Joseon wangjo sillok* (the Veritable Record of Joseon Dynasty), *Tongsinsa deungnok* (Records of the missions to Japan), *Jeungjeong gyorinji* (Enlarged and revised records of foreign relations), and *Haehaeng chongjae* (Collection of records on missions to Japan). According to these documents, Japanese mirrors were imported to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tributary trade, whereby the missions of Jose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exchanged presents, including mirrors from the Japanese; public trade, whereby Japanese trade missions used to visit Joseon regularly and offer mirrors; and private exchanges of gifts between Japanese diplomatic missions and Korean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such mirrors. Historical documents state that Japanese mirrors were in fact brought to Joseon mainly by Japanese diplomatic missions to be offered as presents. Indeed, the period of these Japanese diplomatic missions' activities corresponds to that of the increase in transmission of the number of Japanese mirrors. In fact, such mirrors were recognized as

---

\* Head of collections manager, G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presentative craft items from Japan, they were thus often chosen as official presents for Joseon's missions to Japan.

Meanwhile, Joseon regularly imported silver and bronze from China and Japan in an attempt to meet the country's demand for bronze craft items. For example, Qing's coins were brought to Joseon's public coin foundry to be used as materials for the country's coins, called the country's coins called *sangpyeong tongbo*. On the other hand, Japanese mirrors were used in daily life, given that they were found in Cheongjin-dong in Seoul, Mundang-dong in Gimcheon, and in the tomb of Im Seo's wife. In some cases, the mirrors were also used for religious rites in Buddhist temples. Historical records also explain that Japanese mirrors served as objects at royal events or as official gifts for China. The mirrors would have been distributed widely in Joseon for several reasons such as the insufficient supply of craft items in Joseon following the breakdown of the country's crafting system, which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mpetitive prices and popularity of the newly-brought Japanese mirrors.

Another noteworthy fact is that the Buddhist temples that own Japanese mirrors are located along the route used by Joseon's missions to Japan. Recently, a document was found under a table at Haeryeonsa Temple in Busan, Korea. According to this document, when Joseon's missions visited Japan in 1811, the delegates also visited this temple and used a mirror there. This implies that in this period, Buddhist temples were closely linked to Joseon's missions to Japan,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at the Buddhist temples served as another channel of distribution for Japanese mirrors during the Joseon dynasty.